

#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연구

- 서울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

오충현\* · 이승은\*\*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 I. 서론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은 넓은 의미로는 도시나 도시 근교에서 원예, 곡식, 가축, 어류 등을 생산하는 농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도시의 자투리땅, 뒤뜰, 옥상, 베란다 등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그중에서 학교와 같은 교육공간에서 진행되는 도시농업으로 생산적 기능은 물론, 교육적, 심리적 효과를 주기 위해 조성된 공간을 학교텃밭, 학교농장 또는 스쿨팜이라고 부른다.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2.0에 따르면 2018년까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매년 30~45개의 학교농장을 조성하여 총 150개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농장은 녹색식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이며, 과학·실과 등 관련 교과목 현장학습의 장이며, 공존·배려·창의·인성 요소가 포함된 범교과적 녹색교육 등 다양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적합한 학교폭력 대처 활동 프로그램 요소 및 프로그램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총 187명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석한 연구를 고찰하여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에 적합한 요소를 발굴하였다.

### 2. 연구방법

2015년 5월에 서울시 소재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도시농업 활동 요구조사”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후 SPSS를 통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피해학생에 대한 유형적 특성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설문지 결과 분석

중학교 3학년 1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 식물가꾸기 경험은 100명(53.5%)의 학생들이 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선호하는 텃밭활동을 물어본 결과, 교육 장소는 옥상텃밭이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였고, 두 번째로는 화단을 이용한 텃밭을 선호하였다. 교육자는 원예(식물)전문가를 가장 선호하였고, 학교선생님 또는 교직원을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 기르고 싶은 식물은 1지망 과수(34.8%), 2지망 채소(27.3%), 3지망 곡류(28.3%)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하고 싶은 텃밭활동(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발만들기의 경우 친구들과 공동의 밭 만들기를 가장 선호하고, 작물 기르기의 경우는 물주기 활동, 예체능 관련 활동의 경우 기른 작물로 요리하기, 텃밭 생태계 이해활동에서는 텃밭의 다양한 식물 관찰하기, 텃밭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에서는 기른 작물을 선생님,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하기가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이라고 대답했다.

### 2. 피해학생의 유형적 특성에 따른 도시농업 프로그램 고찰

박경아(2002)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개인, 가족, 학교에서의 보호요인은 부정적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적응 유연성(=탄력성)이란 동일한 고위험 상황에서도 보다 잘 적응하는 속성, 즉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청

본 연구는 2015 농촌진흥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도시농업 활동 적용 방안” 연구비지원으로 진행된 연구임.

표 1. 학교적응유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구분	보호요인	결과
개인	자기 효능감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 높아짐
	내적통제소재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 높아짐
가족	부모의 양육태도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 높아짐
학교	긍정적 학교환경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 높아짐
	교사, 친구지지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 높아짐

소년들이 가지는 적응유연성의 특징은 보호요인에 기인하므로, 보호요인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적응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학교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요인을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리 등(2005)의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에서 청소년 탄력성 요소를 개인 내적요인과 외적보호요인으로 구분한 것을 근거로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위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 간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의미있는 참여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도시농업 각 프로그램에서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각 요소를 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학교폭력 피해학생 탄력성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차	텃밭 활동	탄력성 요인
1	모종심기	내적-감정 및 충동 조절 외적-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2	강낭콩 지지대 세우기	내적-목표와 희망 외적-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돌봄과 기대
3	병충해 예방하기	내적-문제해결 외적-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4	퇴비 낚기와 퇴비 만들기	내적-낙관주의/의미추구 외적-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5	텃밭작물 컬러링	내적-공감과 수용 외적-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6	요리활동	내적-자기효능감 외적-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7	수확과 선물하기	종합
8	진로탐색과 마무리	

## IV. 결론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과거에 식물을 심어본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장소로는 옥상텃밭, 교육자로는 원예전문가, 기르고 싶은 작물로는 과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선호하는 활동은 친구들과 공동의 밭 만들기, 물주기, 기른 작물 요리하기, 텃밭 식물 관찰하기, 기른 작물 선물하기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유형을 분석하여 적응유연성과 탄력성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도시농업이 확대되고, 학교텃밭이 조성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요구와 유형을 분석한 활동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농촌진흥청(2013) 초등교과 연계형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2. 박경아(2002)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3. 서울시(2014) 서울도시농업 백서 서울아 농사짓자.
4. 이해리 등(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5. 최영애, 권영진(2011)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정원 가꾸기.